

2026. 7. 13.(월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6년 7월 13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 부서: 주택실 전략주택공급과

전략주택공급과장

양준모

2133-6280

모아주택정책팀장

소석영

2133-8231

관련 누리집
(메뉴)

<http://www.seoul.go.kr>
상단 분야별정보 > 주택 > 새소식

사진 없음 ☒ 사진 있음 ☐ 쪽수: 3쪽

서울시, 모아주택 '전자투표·총회' 도입 최대 3백만 원 지원...소규모 정비 속도

- 가로주택·자율주택·소규모재건축·재개발 조합에 전자투표·총회 비용 50% 이내 지원
- '26~27년 총회 예정인 조합 대상 수시 모집... 11.30.(월)까지 자치구로 신청 가능
- 시, “조합의 신속 투명한 의사결정 지원해 비용 절감, 참여율·사업 속도 높일 것”

□ 서울시가 모아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까지 ‘전자투표·온라인총회’ 지원을 전면 확대하며 개최 비용의 50% 이내, 조합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해 조합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 속도는 높인다.

□ 시는 모아주택(가로주택), 자율주택, 소규모재건축, 소규모재개발 등 ‘소규모주택 정비사업’ 조합을 대상으로 ‘전자투표·온라인총회 활성화 지원’을 올해 처음 추진한다. 그동안 대규모 정비사업 위주로 적용하던 디지털 총회 지원책을 소규모 정비사업까지 넓힌 것이다.

○ 소규모 정비사업은 자금력이 부족해 총회 때마다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거나, 조합원들의 참여 저조로 의사결정이 지연되기도 했다. 이번 에 소규모 사업까지 모바일·온라인 방식을 전격 도입하면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져 전체적인 사업 기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.

□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은 전자투표와 온라인 총회를 여는 비용의 50% 이내를 지원받는다. 조합별 지원 한도는 최대 300만 원이다. 시는 올해 총 20개 내외의 조합을 선정해 예산을 지원한다.

○ 조합별 지원금액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조합 규모와 총회운영 계획, 기존 조합 운영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한다.

<7월 15일부터 자치구 접수… 내년 1분기 개최 예정 조합도 신청 가능>

□ 신청 대상은 서울 시내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조합 중 총회를 앞둔 곳이다. 올해 안에 총회를 여는 조합뿐 아니라,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(3월)까지 총회 개최 계획이 있는 조합도 신청할 수 있다.

□ 참여를 원하는 조합은 대의원회 의결이나 총회 의결을 거친 후, 7월 15일(수)부터 11월 30일(월)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.

○ 자세한 사항은 ‘서울시 정비사업 정보포털’ (<https://cleanup.seoul.go.kr>), 서울시 누리집(<https://www.seoul.go.kr>)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. 기타 사항은 서울시청 전략주택공급과(☎ 02-2133-8237)로 문의할 수 있다.

□ 서울시는 연말까지 수시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원 대상과 금액을 빠르게 확정할 계획이다. 심사를 통과한 조합이 총회를 마친 뒤 자치구에 비용을 신청하면 보조금을 교부한다.

□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“이번 사업으로 모아주택 등 소규모 정비 사업까지 전자투표 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부담은 낮추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”며 “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업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를 거둘 것”이라고 말했다.